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문영* · 르하그바두람**

<요약>

[연구목적]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져 중국적으로는 국가의 여러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법과 규제 준수를 의미하는 변수, 그리고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인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관심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소득수준, 정규직 여부, 조세 형평성 인식 수준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과 성별, 연령, 소득수준, 정규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수준과 조세 형평성 인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에 대한 인식과 연령, 학력 수준, 소득수준, 정규직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과 조세 형평성 인식 수준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납세자의 법과 규제 준수 인식을 높이려면 납세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2003~2016년까지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과 규제 준수 및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조세회피, 세금회피, 조세 형평성, 사회경제적 요인

논문투고일 : 2024. 12. 3. 1차 수정일 : 2024. 12. 18. 게재확정일 : 2024. 12. 1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제1저자, email: mylee@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교신저자, email: zlhagva0118@yahoo.com

I. 서 론

라틴어 *taxo*에서 유래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 급부”로 정의된다(임상엽과 정정운, 2017). 거의 모든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세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요소로 간접적인 급부는 있을지라도 납세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제의 불합리성,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등은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여러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세회피로 인해 사회적인 계층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지하 경제 규모가 팽창되면 성실한 납세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하여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3년부터 2016년까지(13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문제 관련 149가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자료 중에서 세금에 대한 설문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총 1,05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고, 제 II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III 장에서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를 설명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기술 통계량,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등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전에 조세회피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차단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으로 탈세(tax evasion)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이며, 따라서, 전 세계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많이 고용한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며, 따라서 수많은 변호사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반면에 본국 정부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강력한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조세 회피 대신, 절세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를 합쳐서 조세 불응(tax noncompliance)이라고 한다.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 항목의 허위 보고를 이용한 조세회피이다. 수익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매출을 의미하는데 납세자가 매출을 고의로 과소 계상하여 수익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경우이다.

둘째, 회계처리의 조작을 이용한 조세회피이다. 대체로 기업의 당해 회계연도 경영 성과인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된다. 이중 장부 또는 이중 재무제표의 작성, 매입가액을 과대하게, 매출가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비용 또는 가공매입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이다.

셋째, 세무 자료 및 세무 정보의 미제출(무신고) 유형이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세무 자료의 미제출은 보통 조세회피로 추정되며 세무 자료 미제출의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 신고 등의 무신고를 들 수 있다. 조세회피자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위인 조세회피 행위는 무신고이다.

넷째, 재산(재화)의 은폐 유형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재화) 및 소득을 숨기는 것으로써 재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 놓는 것이다. 사업의 명의자를 타인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상속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섯째, 납세자의 해외 도피 유형이다.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도 흔한 조세회피 유형의 하나이다.

박원일(2000)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세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조세의 납

부를 회피함으로써 세율이 증가한 만큼의 상대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박애자(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를 보여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조세 회피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엔 CSR과 조세 회피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 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조사 직전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 연도는 각각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여져 CSR과 조세 회피와의 음(-)의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직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조사 연도는 좀 더 강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직후 연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2021)의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학계 및 세계의 논점이 되는 사회적 가치경영과 조세회피, 기업가치 주제를 관련지어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경영을 하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세 성향에 대한 기업가치 관련성을 가능한 정교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사회적 가치의 다른 측정 방법을 이용하거나, 세부 항목을 구체적 연구 주제로 다룬다면 사회적 가치경영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세무 보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기업과 과세당국, 주주 및 경영자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2011)의 연구에서는 소속 집단유형별 세법 복잡성 인식도가 조세회피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과세권자들은 상세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의식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대리인 집단에서는 계산과정 복잡성이 조세회피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산과정 복잡성이 많을수록 조세회피 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집단에서는 모호성과 세무양식 복잡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호성과 세무 양식 복잡성이 많을수록 조세회피 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임원의 자사주 보유와 순매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과신 성향과 미행사 스톡옵션을 기준으로 측정한 과신 성향 모형에서 모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과 현금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고 이익의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 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을 높게 평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창열(2013)의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조세회피 활동과 경영자 능력 음(-)의 관련성을 도출하였으나,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 간의 음(-)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금 유효법인세율(cash ETR)에 의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최영(2021)의 연구의 결과는 경영전략의 연속형 변수인 경영전략지수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전략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

회피 기회가 많아져 조세회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영전략 유형별 더미 변수를 이용하였을 때 그 결과는 달랐다. 선도형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방어형, 분석형을 추구하는 기업이 조세회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방어형보다는 분석형을 추구하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렬(2007)의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지에 따라 조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정부가 국민들에게 징수한 세금을 공평하게 납득할 방법으로 지출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회피 욕구를 억제하여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일(2016)의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양도 자산의 가액이 세율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성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도 자산의 가액이 높아질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설문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1-2: 설문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1-3: 설문 참여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1-4: 설문 참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1-5: 설문 참여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라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1-6: 설문 참여자의 조세 형평성에 따라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가설 2: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설문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2-2: 설문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2-3: 설문 참여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2-4: 설문 참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2-5: 설문 참여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라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가설 2-6: 설문 참여자의 조세 형평성에 따라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주요 사기업들이 얼마나 자주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연구가설 1과 얼마나 자주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식(1) ~ 식(2)을 설계하였다.

종속변수인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와 관련된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나머지 통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연구모형 식(1)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MAJORFIRM_COMPLYLAW = & \alpha_0 + \beta_1 Gender + \beta_2 Age + \beta_3 Education + \beta_4 Income \\
 & + \beta_5 Regular_Job + \beta_6 Tax_Equity + \beta_7 More_Jobcreation \\
 & + \beta_8 Opn_Policies + \beta_9 More_Welfare + \epsilon_{it}
 \end{aligned}$$

식(1)

<i>MAJORFIRM_COMPLY LAW</i>	주요 사기업들의 법과 규제 준수 빈도 ① 거의 항상 ② 자주 ③ 때때로 ④ 거의 없다
<i>Gender</i>	응답자의 성별, 여자 1, 남자 0
<i>Age</i>	응답자의 연령
<i>Education</i>	응답자의 학력 ① 무학자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교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석사 졸업 ⑧ 박사 졸업
<i>Income</i>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다 ③ 적당하다 ④ 다소 적다 ⑤ 매우 적다
<i>Regular_Job</i>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 ① 정규직 ② 그렇지 않으면
<i>Tax_Higher</i>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 매우 많다 ② 다소 많다 ③ 적당하다 ④ 다소 적다 ⑤ 매우 적다
<i>Tax_Equity</i>	중간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 매우 많다 ② 다소 많다 ③ 적당하다 ④ 다소 적다 ⑤ 매우 적다
<i>Tax_Lower</i>	저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 매우 많다 ② 다소 많다 ③ 적당하다 ④ 다소 적다 ⑤ 매우 적다
<i>More_Jobcreation</i>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매우 지지 ② 다소 지지 ③ 지지도 반대도 아님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i>Opn_Policies</i>	한국에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 More_Welfare*
- ①집권자보다 세계 경제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
 - ②세계 경제의 상황보다는 집권자에 더 영향을 받는다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 ⑤매우 반대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모형은 아래 식(2)과 같다. 종속변수를 의미하는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MAJORFIRM_TAXAVOID)와 관련된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통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의 연구모형 식(2)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MAJORFIRM_TAXAVOID = & \alpha_0 + \beta_1 Gender + \beta_2 Age + \beta_3 Education + \beta_4 Income \\
 & + \beta_5 Regular_Job + \beta_6 Tax_Equity + \beta_7 More_Jobcreation \\
 & + \beta_8 Opn_Policies + \beta_9 More_Welfare + \epsilon_{it}
 \end{aligned}$$

식(2)

<i>MAJORFIRM_TAXAVOID</i>	주요 사기업들의 세금 회피 시도 ①거의 항상 ②자주 ③때때로 ④거의 없다
<i>Gender</i>	응답자의 성별, 여자 1, 남자 0
<i>Age</i>	응답자의 연령
<i>Education</i>	응답자의 학력 ①무학자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전문대학교 졸업 ⑥대학교 졸업 ⑦석사 졸업 ⑧박사 졸업
<i>Income</i>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①매우 높다 ②다소 높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Regular_Job</i>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 ①정규직 ②그렇지 않으면
<i>Tax_Higher</i>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Tax_Equity</i>	중간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Tax_Lower</i>	저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More_Jobcreation</i>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매우 지지 ②다소 지지 ③지지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i>Opn_Policies</i>	한국에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집권자보다 세계 경제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 ②세계 경제의 상황보다는 집권자에 더 영향을 받는다
<i>More_Welfare</i>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2. 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가. 종속변수: 법과 규제 준수 및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

본 연구에서는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및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MAJORFIRM_TAXAVOID)를 의미하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1~4까지의 서열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법과 규제 준수를 의미하는 변수(MAJORFIRM_COMPLYLAW)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주요 사기업들은 얼마나 자주 다음의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 법과 규제 준수... (답변) ①거의 항상 ②자주 ③때때로 ④거의 없다

세금회피를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 변수(MAJORFIRM_TAXAVOID), 즉, 사기업들이 얼마나 자주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주요 사기업들은 얼마나 자주 다음의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 (답변) ①거의 항상 ②자주 ③때때로 ④거의 없다

나. 독립변수: 사회경제적인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인 성별(Gender), 연령(Age), 학력 수준(Education), 소득 수준(Income), 정규직 여부(Regular_Job) 및 조세 형평성 인식 수준(Tax_Equity)으로 설정하였다.

성별(Gender)은 설문 응답자가 남자면 0, 여자면 1로 정의하였고, 연령(Age)은 응답자의 연령, 학력 수준(Education)은 응답자의 최종 학력으로 '①무학자,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전문대학교 졸업, ⑥대학교 졸업, ⑦석사 졸업, ⑧박사 졸업' 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Income)은 세전 월평균 총소득 금액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정규직 여부(Regular_Job)는 재직 중인 직장이 정규적이면 ①, 그렇지 않으면 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세 형평성 인식수준(Tax_Equity)은 각각 고소득자(Higher), 중간소득자(Middle), 저소득자(Lower)가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만큼인지를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세금이란 임금 공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말한다.

- 고소득자(High) :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
- 중간소득자(Middle) :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
- 저소득자(Low) :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

(답변)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More_Jobcreation), 한국에서 무엇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Opn_Policies), 사회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More_Welfare)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More_Jobcreation)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①매우지지 ②다소지지 ③지지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한국에서 무엇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Opn_Policies)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한국에서 무엇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이 귀하의 관점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①한국에서 정책은 집권자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

②정책은 세계 경제의 상황보다는 집권자에 더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More_Welfare)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3. 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설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로 선정하였다. 총 1,05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총 149개의 문항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1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금 및 조세법과 관련된 질문 6개, 사회층에 포함된 질문, 성별에 관한 질문, 연령에 관한 질문, 학력 수준에 관한 질문, 월평균 소득에 관한 질문, 직업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IV.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은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4분위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의 평균이 2.666이고 중위수가 2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를 나타내는(MAJORFIRM_TAXAVOID)의 평균은 2.389이고 중위수 2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독립변수를 나타내는 변수인 성별(Gender)은 평균 0.548, 중위수 1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며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연령(Age)의 평균은 49.586으로 중위수인 49와 비슷한 값을 보임에 따라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이 50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 수준(Education)의 평균은 4.540으로 중위수인 5보다 약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Income)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9.055와 8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정규직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Regular_job)의 경우 평균 0.277, 중위수 0으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설문 응답자 중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변수(Tax_Higher)와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의미 변수(Tax_Middle)는 평균과 중위수의 값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의미 변수(Tax_lower)의 평균은 2.444로 중위수인 2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의미 변수(More_Jobcreation)는 평균이 1.847, 중위수 2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다. 한국에서 무엇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변수(Opn_Policies)의 경우 평균 1.781, 중위수 및 최대값 2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정책은 세계 경제의 상황보다는 집권자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변수(More_Welfare)는 평균 2.701, 중위수 2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N=1,05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MAJORFIRM_COMPLYLAW	2.666	1.141	1	2	2	3	4	
MAJORFIRM_TAXAVOID	2.389	1.142	1	2	2	3	4	
Gender	0.548	0.497	0	0	1	1	1	
Age	49.586	18.609	18	34	49	64	99	
Education	4.540	1.700	1	4	5	6	8	
Income	9.055	6.358	0	4	8	12	22	
Regular_Job	0.277	0.448	0	0	0	1	1	
Tax_Equity	Tax_Higher	4.076	1.122	1	4	4	5	5
	Tax_Middle	2.886	1.107	1	2	3	3	5
	Tax_Lower	2.444	1.165	1	2	2	3	5
More_Jobcreation	1.847	0.938	1	1	2	2	2	
Opn_Policies	1.781	1.284	1	1	2	2	5	
More_Welfare	2.701	1.205	1	2	2	3	5	

주)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i>MAJORFIRM_COMPLY LAW</i>	주요 사기업들의 법과 규제 준수 빈도 ①거의 항상 ②자주 ③때때로 ④거의 없다
<i>MAJORFIRM_TAXAVOID</i>	주요 사기업들의 세금 회피 시도 ①거의 항상 ②자주 ③때때로 ④거의 없다
<i>Gender</i>	응답자의 성별, 여자 1, 남자 0
<i>Age</i>	응답자의 연령
<i>Education</i>	응답자의 학력 ①무학자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전문대학교 졸업 ⑥대학교 졸업 ⑦석사 졸업 ⑧박사 졸업
<i>Income</i>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①매우 높다 ②다소 높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Regular_Job</i>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 ①정규직 ②그렇지 않으면
<i>Tax_Higher</i>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Tax_Equity Tax_Middle</i>	중간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Tax_Lower</i>	저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 ①매우 많다 ②다소 많다 ③적당하다 ④다소 적다 ⑤매우 적다
<i>More_Jobcreation</i>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매우 지지 ②다소 지지 ③지지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p><i>Opn_Policies</i></p> <p><i>More_Welfare</i></p>	<p>⑤매우 반대</p> <p>한국에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 <p>①집권자보다 세계 경제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p> <p>②세계 경제의 상황보다는 집권자에 더 영향을 받는다</p> <p>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p> <p>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p> <p>⑤매우 반대</p>
---	--

2.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와 세금 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의 상관계수는 0.16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Gender)은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와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조세 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와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연령(Age)의 경우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성별(Gender)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143, 0.102로 모두 1% 수준의 유의한 양(+)의 관계를, 조세 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와는 10% 수준의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학력 수준(Education)은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성별(Gender), 연령(Age)과의 관계에서 각각 -0.197, -0.164, -0.620으로 모두 1% 수준의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법과 규제 준수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Income)은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나이(Age), 학력(Education)과 각각 1% 수준의 유의한 -0.128, -0.401, 0.556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조세 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 성별(Gender)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065, -0.073으로 5% 수준의 유의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정규직 여부(Regular_Job)는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학력 수준(Education), 소득 수준(Income)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079, 0.276, 0.30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성별(Gender), 연령(Age)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145, -0.19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조세회피시도(MAJORFIRM_TAXAVOID)와는 유의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조세 형평성(Tax_Equity) 관련 변수 중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변수(Tax_Higher)는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조세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 연령(Age)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225, 0.097, 0.107로 1% 수준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학력(Education), 소득수준(Income)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072, -0.114, -0.07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MAJORFIRM_COMPLYLAW	MAJORFIRM_TAX	GENDER	Ln_age	EDU	Ln_income	GOVSPD_JOBS	OPN_POLICIES	REGULAR_EMPLOY	TAXWELF	TAX_HIGHER	TAX_MIDDLE
MAJORFIRM_TAX	0.169***											
GENDER	0.048*	0.071**										
Ln_age	0.143***	0.054*	0.102***									
EDU	-0.197***	-0.070**	-0.164***	-0.620***								
Ln_income	-0.128***	-0.065**	-0.073**	-0.401***	0.556***							
GOVSPD_JOBS	0.069**	0.097***	0.074***	0.036	-0.093***	-0.074**						
OPN_POLICIES	0.215***	0.176***	0.025	0.117***	-0.121***	-0.091***	0.164***					
REGULAR_EMPLOY	0.079***	-0.036	-0.145***	-0.195***	0.276***	0.309***	-0.023	-0.023				
TAXWELF	0.084***	0.032	0.092***	0.022	-0.078***	-0.012	0.130***	-0.020	-0.015			
TAX_HIGHER	0.225***	0.097***	0.054	0.107***	-0.072***	-0.114***	0.010	0.156***	-0.026	-0.074***		
TAX_MIDDLE	0.243***	0.253***	0.026	0.075***	-0.092***	-0.140***	0.041	0.202***	-0.068**	0.006	0.426***	
TAX_LOWER	0.104***	0.221***	0.046*	0.009	-0.007	-0.032	0.127***	0.138***	-0.083***	0.047*	0.121***	0.412***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는 <표1>의 주 1)과 같음

마찬가지로 중간 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 변수(Tax_Middle)도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조세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 연령(Age)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243, 0.253, 0.07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학력(Education), 소득수준(Income)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092, -0.14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변수(Tax_Lower)의 경우는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조세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와 1% 수준에서 유의한 0.104, 0.221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변수(More_Jobcreation)는 세금 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 성별(Gender)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097, 0.074로 1% 수준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학력(Education)과의 상관계수는 -0.093으로 1% 수준의 유의

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와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소득수준(Income)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한국 정책 영향 요인을 의미하는 변수(Opn_Policies)는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조세회피 시도(MAJORFIRM_TAXAVOID), 연령(Age)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215, 0.176, 0.11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학력(Education), 소득수준(Income)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121, -0.091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복지 확대를 의미하는 변수(More_Welfare)는 법과 규제 준수(MAJORFIRM_COMPLYLAW), 성별(Gender)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084, 0.09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학력 수준(Education)과의 상관계수는 -0.07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3-1>은 연구가설 1의 검증 결과이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성별(Gender), 연령(Age), 소득수준(Income) 및 정규직 여부(Regular_Job)의 계수 값은 각각 0.066($p<0.360$), 0.049($p<0.661$), -0.011($p<0.846$), 0.047($p<0.573$)로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4와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학력 수준을 의미하는 변수(Education)의 회귀계수 값은 0.077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법과 규제 준수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의미하는 변수(Tax_Equity) 중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과 관련된 변수(Tax_Higher)의 회귀계수는 -0.11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 변수(Tax_Lower)의 경우 회귀계수는 0.040($p<0.257$)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한국의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인 Opn_Policies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More_Welfare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법과 규제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3-1> 법과 규제 준수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MAJORFIRM_COMPLYLAW			
	Estimate	Chi-Square	Pr>ChiSquare	
Intercept	-1.332***	5.60	0.018	
Intercept2	1.810***	656.93	<.001	
intercept3	2.429***	1,013.22	<.001	
intercept4	3.983***	829.16	<.001	
Gender	0.066	0.84	0.360	
Age	0.049	0.19	0.661	
Education	0.077***	6.82	0.009	
Income	-0.011	0.04	0.846	
Regular_Job	0.047	0.32	0.573	
Tax_Equity	Tax_Higher	-0.119***	11.02	<.001
	Tax_Middle	-0.066*	2.69	0.100
	Tax_Lower	0.040	0.04	0.257
More_Jobcreation	0.016	0.17	0.681	
Opn_Policies	-0.065**	4.55	0.032	
More_Welfare	-0.075**	6.36	0.011	
Log Likelihood	-1,135.87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는 <표1>의 주1)과 같음

<표 3-2>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성별(Gender)의 회귀계수는 -0.152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연령(Age), 학력 수준(Education), 소득 수준(Income) 및 정규직 여부(Regular_Job)의 회귀계수는 각각 -0.074(p<0.503), -0.036(p<0.214), 0.052(p<0.385) 및 -0.050(p<0.5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2-2, 가설 2-3 및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조세 형평성 인식에 관련된 변수들 중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Higher)의 회귀계수 값은 0.106으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이 보였으며,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변수인 Tax_Middle과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인 Tax_Lower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가설 2-6을 지지하였다. 이는 중간소득자나 저소득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More_Jobcreation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표 3-2>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MAJORFIRM_TAXAVOID		
		Estimate	Chi-Square	Pr>ChiSquare
Intercept		0.034	0.00	0.949
Intercept2		0.887	400.02	<.001
intercept3		2.307	997.11	<.001
intercept4		3.190	560.35	<.001
Gender		-0.152**	4.53	0.033
Age		-0.074	0.45	0.503
Education		-0.036	1.54	0.214
Income		0.052	0.75	0.385
Regular_Job		-0.050	0.37	0.541
Tax_Equity	Tax_Higher	0.106**	9.05	0.002
	Tax_Middle	-0.152***	14.34	<.001
	Tax_Lower	-0.090**	6.42	0.011
More_Jobcreation		-0.073*	3.34	0.067
Opn_Policies		-0.047	2.51	0.113
More_Welfare		0.022	0.59	0.441
Log Likelihood		-1,204.8		

주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1>의 주1)과 같음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소득 수준, 정규직 여부, 조세 형평성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 리서치 센터(Survey Research Center) 및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항목인 2016년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과 성별(Gender), 연령(Age), 소득수준(Income) 및 정규직 여부(Regular_Job)와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Lower)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수준(Education), 조세 형평성을 의미하는 변수 중에서 고소득자들 및 중간 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냈고,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 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변수는 10% 수준에서 음(-)의 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법과 규제 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에 대한 인식과 성별, 연령, 소득수준, 정규직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조세 형평성을 의미하는 변수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록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여 조세 형평성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 인식에 차이가 있을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중간 소득자들이 세금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에 차이가 있을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인식의 경우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세금 회피를 위한 시도에 차이가 있을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법과 규제 준수 인식을 높이려면 납세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2016년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과 규제 준수 및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창열. 2013. 「경영자 능력이 경영성과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성렬. 2007.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박애자. 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 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박원일. 2000.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안동일. 2016.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대학원.
- 이승훈. 2021. 「기업의 사회적 가치경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최영. 2021. 「기업의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용수. 2011. 「세법복잡성이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장승주·김응길·이용규·노희천. 2017.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 연구」, 제34권 제2호 : 41-76.
- 임상엽·정정운. 2017. 「세법개론」. 제23판. 서울: 상경사.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Tax Authority and Fair Tax Administration

Moonyoung Lee*, Zorigt Lkhagvadulam**

— <Abstract> —

[Purpose] Taxpayers use tax avoidance as a means to avoid paying taxes or pay less, which not only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but also leads to a decrease in national financial revenue, ultimately causing confusion in various national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ax avoidance by private companies.

[Design/Methodology] Using the survey data from the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we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awareness of tax avoidance by private companie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variables indicating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variables indicating attempts to avoid taxes. The main variables of interest that affect the level of awareness were selected as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whether full-time or not, and level of awareness of tax fairness.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gender, age, income level, and full-time employmen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level and tax fairness perception level.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attempts to evade taxes and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full-time employmen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ax fairness perception level.

[Research implications] The study suggests that taxpayers' education level should be high in order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seems to be a limitation in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attempts to evade taxes using survey data from 2003 to 2016. In future studies, it is thought that empirical analysis results and logical interpretation using various survey data are necessary.

<Key Words> Tax evasion, Tax avoidance, Tax fairness, Socioeconomic factors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Author, email: mylee@seoultech.ac.kr

**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email: zlhagva0118@yahoo.com